

2026
02

병리협보



등록번호 성북 라 00009호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전문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www.kamt.or.kr

CONTENTS

01 COVER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연구·정책 과제 공모 안내

02 FOCUS

디지털 헬스케어 전환기
임상병리사 어떻게 준비
해야 하는가?

03 KAMT NEWS

보건복지부 면허정지
행정처분 시행 예고

04 KAMT NEWS

임상병리사 국가시험 위원
장 및 국가시험 수석 합격자
인터뷰/중앙회.시도회 소식

제517호

병리협보 제작에 도움주신 분들

Global Standard of Reference Lab.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Leading a Peaceful Life with Technology
주식회사 티알

발행인 이광우 / 편집인 서경아

편집위원 이도왕, 이현희, 남기준

기자 오민우

발행소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

Tel : 02)3291-5435

Fax : 02)3291-5621

2026년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연구·정책과제 공모

2026년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연구·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공모 유형 및 주제 : 본 공모는 아래 주제를 기준으로 함(주제별 지원 예산 상이함, 협회 공지사항 참고요망)

※ 개인정책과제 | 지원예산 : 총 2,000만원(과제 당 200~500만원까지 지원/총 7개)

- (1) 보건의료체계 개선, 인증, 표준화 등 전 분야 QMS
(산학협동 연구정책과제 포함)
- (2) 분과 기반 임상 진단 프로세스 표준모델 개발
- (3) 중소병의원 검사실 운영 구조 개선 정책 모델(Non-HRH)

※ 대외정책과제 | 지원예산 : 총 2,000만원(과제 당 1,000만원까지 지원/총 2개)

- (1) 학제 일원화 후속정책(교육 표준 · 실습 · 핵심역량 모델)
- (2) 통합돌봄 기반 임상 병리 모델 개발
- (3) 중소병의원 HRH(인력 기준 · 급여 · 근무환경)



신청자격: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회원(2026, 2025, 2024년 협회비 납부 또는 면제자)
- 정책연구 특성상, 현장(검사실 운영) 경험 또는 자료 접근 계획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함

공모일정:

- (1) 공고일 : 2026.01.26(월)
- (2) 접수기간 : 2026. 2. 28(토) 마감
- (3) 서면평가 : 2026. 3. 10(화)
- (4) 발표심사 : 2026. 3. 14(토) 10:00 - 12:00
- (5) 연구기간 : 2026. 4. ~ 2026.12. 31(목)
- ※ 연구 기간을 준수하여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신청서류 및 제출방법:

- (1) 제출서류: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2) 이메일 제출 (kamt@daum.net)

※ 자세한 사항은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공고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정관 제24조에 의거,
2026년도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일시 2026. 02. 28 (토) 오후 2시

장소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지하1층 CJ홀(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안건(안):

- [제 1 호 의안] 전 회의록 승인의 건
- [제 2 호 의안] 2025년도 회무 및 경과 보고의 건
- [제 3-1 호 의안] 2025년도 사업실적 보고의 건
- [제 3-2 호 의안] 2025년도 결산 보고의 건
- [제 3-3 호 의안] 2025년도 종합감사 보고의 건
- [제 4-1 호 의안] 2026년도 사업계획(안) 심의의 건
- [제 4-2 호 의안]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의의 건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 노경운

디지털 헬스케어 전환기 임상병리사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 AI 자동화 시대 임상병리사 취업에 대하여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외협력정책실장 김 기 유

2026년에도 변함없이 임상병리사 국가고시에서 합격해서 새로이 면허를 취득한 2,497명의 예비 임상병리사들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임상병리사로 활약하기 위해서는 험난한 취업 전선에서 취업 한파와 정면으로 부딪혀야 한다.

2026년 졸업을 앞둔 임상병리사 취업준비생들의 불안은 단순한 경기 변동이나 일시적 취업난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개인의 노력 부족이나 준비 미흡으로 설명될 수 없는 보건의료 인력 구조 전반의 변화가 누적된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문제를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 이공계 전공자의 상당수가 전공과 무관한 직무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은 고용 구조가 얼마나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의료기술직 역시 예외가 아니다. 자동화 검사 장비의 확산, 병원 경영 환경의 압박, 수가 중심의 재정 구조, 인건비 비중에 대한 지속적 통제는 임상병리사 채용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의 속도에 비해 교육제도와 인식의 전환이 지나치게 더디다는 점이다.



‘면허가 있으면 취업된다’는 오래된 신화의 붕괴

임상병리사는 오랫동안 안정적인 전문직으로 인식돼 왔다. 국가시험을 통과하고 면허를 취득하면 병원 취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기대가 사회인식 전반에 자리 잡아 있었다. 그러나 이 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대형 병원의 신규 채용 규모는 구조적으로 제한돼 있고, 중소병원 역시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이유로 인력 충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정규직 중심이던 채용 구조는 점차 계약직·기간제·대체 인력 중심으로 바뀌고 있으며, 동일한 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하는 지원자의 수는 계속 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취업 문이 좁아졌다”는 표현으로 설명될 문제가 아니다. 기존의 고용 흡수 구조 자체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과 정책 담론은 여전히 과거의 인식에 머물러 있다. 입학정원 확대나 학과유지 논의는 반복되지만, 졸업 이후 어떤 영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간극은 결국 취업 시장에 진입하는 취업준비 임상병리사 개인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전가된다.

중소 규모 조직으로 이동하는 취업의 중심축

최근 통계가 보여주듯, 의정사태이후 취업자의 다수는 중소 규모 조직으로 흡수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하향 취업’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다. 의료 분야 역시 대형병원 중심 구조에서 중소병의원, 검사 전문기관, 진단센터, 임상시험수탁 기관(CRO), 연구·개발 조직, 산업체 부설 연구소 등으로 점차 분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 변화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채, 여전히 ‘대형병원 취업 실패는 경력의 실패’라는 왜곡된 인식이 고착돼 있다. 이 인식은 취업준비생들에게 불필요한 좌절감을 안기고, 합리적인 진로 선택을 가로막는다. 이제는 조직의 규모가 아니라, 해당 직무가 요구하는 전문성, 직무의 지속 가능성, 기술 변화 속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자동화·AI 시대, 임상병리사의 역할은 사라지는가?

검사 자동화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임상병리사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는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절반만 맞는 진단이다. 기술은 단순 반복 업무를 대체하지만, 검사 체계를 이해하고, 검사 결과의 임상적 의미를 해석하며, 전 과정의 품질을 관리하는 전문 인력의 역할까지 대체하지는 못한다. 오히려 디지털 헬스케어 환경에서는 임상병리사의 역할이 재정의되고 있다. 자동화 장비의 정확도를 검증하고,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검사 결과가 임상 현장에서 올바르게 활용되도록 연결하는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직무 역량의 기준과 교육 내용이 충분히 전환되고 있느냐는 점이다. 이제 단순한 검사 수행 능력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데이터 구조에 대한 이해, 검사 알고리즘의 기본 원리, 장비 간 결과 비교와 표준화, 검사 품질 관리(QA·QC)에 대한 통합적 사고가 요구된다. 디지털 전환은 직업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직무를 도태시킨다.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 확장되는 임상병리사의 활동 영역

디지털 헬스케어는 임상병리사의 취업 영역을 병원 울타리 안에만 가두지 않는다. 체외진단 산업, 의료기기·진단시약 기업,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 임상시험 및 연구 분야는 이미 임상병리사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진단검사의 정확성과 재현성, 데이터 해석의 신뢰성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핵심 인프라다. 이 과정에서 임상병리사는 단순한 ‘검사 인력’이 아니라, 진단 기술의 검증자이자 품질 책임자, 임상과 기술을 연결하는 중재자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공공보건 영역, 질병 관리 체계, 국가 차원의 검사 표준 수립 과정에서도 전문인력으로서의 역할은 확대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경로들이 임상병리사의 영역의 응용이자 확장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선택지가 충분히 안내되지 않고, 제도적으로도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개인에게만 전가된 구조적 문제

현재의 취업난을 개인의 문제로만 돌리는 태도는 무책임하다. 취업 준비생들은 이미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구조 변화에 대한 정보 제공, 진로 다변화에 대한 체계적 안내,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와 연계된 교육과정과 실습과정이 여전히 부족하다. 임상병리사 취업 문제는 단일 직종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보건의료 인력 정책, 교육 정책, 산업 정책, 노동 시장 정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결과다. 이 연결 고리를 복원하지 않는 한, 취업난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제 필요한 것은 방향 전환이다. 2026년 지금, 임상병리사 취업 전략은 분명히 재설정돼야 한다. 병원 취업만을 유일한 목표로 설정하는 접근에서 벗어나, 검사 전문기관, 연구·임상시험 분야, 진단 관련 산업,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는 전공을 포기하는 선택이 아니라, 전공의 사회적 활용 범위를 넓히는 선택이다. 정책 결정자와 교육 기관 역시 입학과 배출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졸업 이후의 경력 경로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취업 준비생 개인에게만 ‘유연성을 가져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유연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임상병리사를 양성하는 대학과 협회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2026년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취업 시장은 냉정하다. 그러나 그 냉정함이 곧 절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현실을 정확히 읽고, 변화의 방향에 맞춰 준비하는 일이다. 한 번의 실패, 예상과 다른 선택이 곧 경력의 실패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임상병리사는 여전히 사회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다. 다만 그 전문성이 발휘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을 뿐이다. 이 변화를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2026년의 취업 시장은 여전히 열려 있다.

2026년 보건복지부 면허 효력 정지 행정처분 시행 예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의료기사 등은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제11조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신고**하여야 한다.

행정처분 시행 강화 예고

보수교육 미이수 & 면허 미신고

면허효력 정지 예고 통보 (유예기간 있음)

유예기간 내 면허 미신고 시 면허 효력 정지

- 대상자
2024년 이전 면허취득 자 중 단 한번도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임상병리사
(보건복지부 명단 추출 기준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면허신고 대상자 중 미신고자도 해당될 수 있음)
- 확인방법
 - 보수교육 이수 여부 확인 : 협회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연도별 보수교육 이수 현황
 - 면허신고 여부 확인 :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 - 신고현황 확인
- 주의사항
 - 보수교육 이수 대상자는 필수교육 2시간도 이수해야 합니다.
 -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대상자는 연도별 면제 및 유예 신청 및 판정 완료 후 면허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문의처 : 02) 3291-5435 (내선 0번)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위원회 임상병리사 시험위원회

임상병리 분야의 풍부한 학술적 경험과 교육 역량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인국가시험위원회 임상병리사 시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한규 위원장.

국가시험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험 체계 개선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그의 위원장 취임은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의 새로운 도약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보건의료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임상병리사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임상병리사 시험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김한규 위원장에게 향후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의 방향과 비전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한규 위원장을 만나다.

Q.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보건의료인국가시험위원회 임상병리사 시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한규입니다. 저는 그동안 임상병리 분야에서 교육자이자 연구자로서 활동해왔으며, 특히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번에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우리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이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임상병리사 시험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신 지 반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A. 임상병리사 시험위원회는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구로 출제 기준의 개발 및 개정부터 문항 출제 및 검토, 시험의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합격 기준 설정에 이르기까지 시험 전 과정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임상병리사의 역할과 직무를 반영하기 위해 직무 분석을 기반으로 한 출제 기준 재정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문항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출제위원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문항 검토 체계를 강화하는 등 시험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대학 교수진과 현장 전문가, 대한임상병리사협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 시험이 실제 임상 현장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의 창구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Q. 과거의 국가시험과 현재의 국가시험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A. 가장 큰 차이는 평가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암기 중심의 지식 평가에 치중했다면, 현재는 임상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문항 구성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과거에는 단순 지식 재생형 문항이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임상 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분석·해석·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사례 중심 문항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형 문항을 통해 여러 과목의 지식을 융합적으로 활용하는 역량 역시 함께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의료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검사법의 도입에 발맞춰 출제 내용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분자진단, 유전자 검사,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등 최신 임상병리 기술이 시험 범위에 포함되면서, 국가시험의 현장 연계성과 실무 적합성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의 과학적 관리 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문항 난이도 분석과 변별도 검증, 통계적 타당성 검토 등 체계적인 사후 분석 절차를 통해 시험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Q.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현재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이 앞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 또는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무엇인가요?

A. 세 가지 방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역량 기반 평가(Competency-Based Assessment)로의 전환입니다. 단순히 무엇을 아는가를 평가하는 것을 넘어 실제 임상 현장에서 필요한 핵심 역량을 제대로 갖추었는가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무 분석을 더욱 정교화하고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둘째, 평가 방법의 다양화입니다. 현재의 선다형 필기시험만으로는 임상병리사에게 요구되는 모든 역량을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실기 평가나 컴퓨터 기반 시험(CBT) 도입 등을 검토하여 실제 업무 수행 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셋째, 평생 학습 체계와의 연계입니다. 국가시험은 시작점일 뿐, 면허 취득 이후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이 더욱 중요합니다. 국가시험이 평생교육과 자격 유지 체계의 일부로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험위원회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직능단체, 보건당국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후배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국가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예비 임상병리사 여러분, 먼저 수험 준비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국가시험은 단순히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한 관문이 아닙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 전문가로서의 첫걸음이며, 여러분이 갖춘 전문성을 사회에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준비 과정에서는 단순 암기보다는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학습이 중요합니다. 임상 사례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연습을 하고 각 검사의 의미와 결과 해석 능력을 기르는 데 집중한다면 시험 준비는 물론 향후 전문가로서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곧 진입하게 될 임상병리 분야는 의료 기술의 발전과 함께 그 역할과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정밀의료, 인공지능 기반 진단, 분자유전학적 검사 등 새로운 영역이 계속 열리고 있는 만큼, 국가시험 합격을 출발점으로 삼아 평생 학습하는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시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임상병리사협회를 비롯한 선배들은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고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훌륭한 임상병리사로 성장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시기를 바라며 건강 잘 챙기시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6년도 제54회 임상병리사 국가시험 수석합격자 인터뷰

Q.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안산대학교 임상병리학과 23학번 이수민입니다.



Q. 수석 합격소식을 접했을 때 소감이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A. 수석 합격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후회 없이 최선의 결과를 내자'라는 마음으로 임했었는데, 국가고시를 위해 달려온 그동안의 노력이 증명된 것 같아 정말 뿌듯합니다.

Q.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합격에 대한 팁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저의 기본은 교수님들의 수업을 놓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배운 것은 당일에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또, 학교 모의고사에 실전처럼 임하고, 오답 노트를 작성해 반복 학습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과목씩 완벽히 이해하고, 숙지하며 준비했던 과정이 국가고시 준비에 있어 가장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Q. 임상병리사로서 첫 발을 내딛는 각오와 이후에 진출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드디어 임상병리사로서의 진정한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기에 늘 공부하고 노력하며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신뢰받는 임상병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환자들을 마주하며 신뢰와 안정감을 드리는 생리 기능 검사 분야나, 검사의 정확도를 책임지는 시약 개발 분야로 진출하여 많은 이에게 신임받는 임상병리사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Q.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이번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하게 된 혜전대학교의 조혜찬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실습을 바탕으로 꾸준히 준비해왔고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인사드릴 수 있어 영광입니다.



Q. 수석 합격소식을 접했을 때 소감이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A. 수석 합격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놀랐고 기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운 마음이었지만 그동안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을 생각하니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과보다도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점이 떠올랐고, 그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졌다고 느꼈습니다.

Q.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합격에 대한 팁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점은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목 수가 많다 보니 조금씩 쉬는 습관도, 핵심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반복해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출문제를 통해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틀린 문제는 왜 틀렸는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습관이 도움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이 합격의 가장 큰 비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임상병리사로서 첫 발을 내딛는 각오와 이후에 진출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임상병리사는 환자의 진단에 중요한 기초가 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검사 결과를 제공하는 임상병리사가 되기 위해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Q.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신성대학교 임상병리과 졸업을 앞둔 박채은입니다.



Q. 수석 합격소식을 접했을 때 소감이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A. 수석을 목표로 공부하기는 했지만, 가채점 당시에는 '아, 수석 합격은 어렵겠구나' 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합격자 발표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웬지 국시원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국시원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정말 쿵광거렸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에 제 실력, 그리고 그날의 운까지 잘 따라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부모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 역시 수석합격의 기쁨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Q.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합격에 대한 팁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저는 교수님 말씀을 하나라도 더 귀에 담으려 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시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강의를 들었던 점이 도움이 됐습니다. 공부할 때는 무작정 외우기보다 어떤 원리로 진행되는지,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이해하려고 했고,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동기들과 나누는 것도 암기에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Q. 임상병리사로서 첫 발을 내딛는 각오와 이후에 진출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임상병리사로서 첫발을 내딛게 되어 설레는 마음이 큼니다. 평소 관심 있고 좋아하던 일을 직업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기쁩니다. 저는 병리과에 가장 흥미가 있어서 앞으로 현장에서 기본을 충실히 다지면서 경험을 쌓고, 이후에는 육안전문병리사 자격 취득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Q.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동의과학대학교 졸업을 앞 둔 김지승입니다.



Q. 수석 합격소식을 접했을 때 소감이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A. 전국 수석이라는 전화를 받고는 믿기지 않고 실감나지도 않아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두 번이나 확인하고 확인했습니다. 제일 먼저 좋은 성적의 기반을 만들어주신 학교 교수님들께 전화해서 소식을 알렸습니다. 너무 기뻐하셨고 저도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Q.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합격에 대한 팁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무리하게 공부량을 늘리기보다는 컨디션 관리에 신경 쓰며 차근차근 꾸준히 몸에 익히는 것으로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준비한다면 합격은 물론 그 이상의 결과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임상병리사로서 첫 발을 내딛는 각오와 이후에 진출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검사 결과가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좌우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의료의 정확성을 지탱하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전공 공부를 통해 모든 검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매력을 느꼈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빠르게 전문성을 발휘할 자신이 있습니다. 임상에 진출하면 진단검사의학과의 핵심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정확한 진단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 진료에 기여하는 임상병리사가 되고자 합니다.

Q.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도 임상병리사 국가고시를 수석으로 합격한 대구보건대학교 임상병리학과 노종민입니다.



Q. 수석 합격소식을 접했을 때 소감이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A. 합격자 발표 당일, 국시원으로부터 수석합격이라는 전화를 받았을 때는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국가고시 준비에 많은 시간을 쏟아온 만큼 수석이라는 결과가 정말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제가 국가고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저 혼자 노력만으로 이룬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늘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지도교수님과 마음을 다해 지도해주신 모든 학교 교수님들,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같은 반에서 함께 공부하며 웃고 떠들었던 G반,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언제나 저를 믿고 아낌없이 지원해주셨던 부모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제게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Q.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합격에 대한 팁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사실 국가고시 과목들은 학습하기 꽤 많은 양이기 때문에 이를 모두 습득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단순 암기에 그치지 않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임상병리학이 생명과학을 기반으로 한 학문인 만큼 각 현상과 기전을 이해하려는 탐구하는 자세를 갖춘다면 내용이 오래 기억에 남아 국가고시 합격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임상병리사로서 첫 발을 내딛는 각오와 이후에 진출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임상병리사가 할 수 있는 검사 분야 중 최종 진단과 확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자진단 분야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분자진단 기술을 지속적으로 학습·연구하여 임상 전반에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연구자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제515차 상임이사회 개최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01월 31일(토) 오후 1시 30분 협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제 515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19명 중 17명이 참석해 성원됐고 부장 26명 중 17명, 총원 45명 중 34명이 참석했다.

금번 상임이사회 안건 심의 및 의결에서는 2026년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 포상대상자 승인의 건,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정책 관련 행사 비용 지급 세칙' 제정의 건, '전문임상병리사제도 운영규정' 개정의 건, '연구·정책과제 운영관리규정' 개정의 건, '종합학술대회 운영규정' 및 '보수교육 운영세칙' 개정의 건, 사무국운영 제 규정 개정의 건, 사무국운영 제 규정(정근수당 지급 세칙) 개정의 건, '보수교육 운영세칙' 개정의 건, 2026년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회비 납부의 건, 2026년 예산 보고의 건,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전시부스 및 초록광고 증액의 건이 진행됐다. '종합학술대회 운영규정' 및 '보수교육 운영세칙' 개정의 건은 유보됐고 그 외 안건은 모두 통과됐으며 이후 제515차 상임이사회는 폐회했다.

제188차 정기이사회 개최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지난 2월 7일(토) 오후 2시 대한임상병리사협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제188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이사회에는 총원 53명 중 40명(성원), 감사 3명이 참석했다.

이번 정기이사회에서 정리된 각 부서별 보고사항으로는 ▲총무부 2026년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안내 외 5건 ▲재무부 교부금 지급 외 3건 ▲학술부 학술센터 전산고도화 회의 및 2026년 제1차 학술부 회의 외 6건 ▲교육부 협회 폐기능 실무교육 외 3건 ▲국제부 2026년 제17회 대만학회 참가자 모집의 건 외 3건 ▲공보부 온라인 병리협보 12월호 발행의 건 외 5건 ▲정보통신부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의 건 외 4건 ▲정무부 더불어민주당 2025년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성과보고회 참석 보고의 건 ▲대외협력부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전시부스 및 초록광고 증액의 건 ▲중소병의원부 공익신고 위원회 회의 외 2건 ▲보험부 협회 홈페이지 자료 업로드의 건 외 1건을 진행했다.

안건 심의 및 의결에서는 2026년도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 대의원 선출의 건, 2026년도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 안건 상정의 건, 2025년도 종합감사 결과 보고의 건,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전문임상병리사제도 운영규정' 개정의 건, '연구·정책과제 운영관리규정' 개정의 건, 사무국운영 제 규정 개정의 건, 2026년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회비 납부의 건, 종합학술대회 기금 조성 및 보수교육 전용 계좌 신설의 건, 2025년 결산 보고의 건, 2026년 예산 보고의 건을 진행했다. 안건은 제7호 '사무국운영 제 규정 개정의 건'이 유보 되었고 그 외 안건은 모두 통과됐으며 이후 제188차 정기이사회는 폐회되었다.

2026년 현장실습 법제화 관련 병원 실장 회의 개최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지난 1월 23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현장실습을 담당하고 있는 병원 실장(현장실습 담당자)을 중심으로 2026년 현장실습 법제화 관련 병원 실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회의에는 중앙회 임원과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각 병원의 실장과 현장실습 책임자 그리고 한국임상병리학과 교수협의회 임원들이 참석하여, 법제화 시행을 앞둔 현장실습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공유하였다. 이번 회의는 2026년 현장실습 법제화 시행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 논의 차원에서 개최되었으며, 법 개정 이후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사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현장실습 시간 기준의 적정성 ▲병원별 실습 운영 기준의 차이 ▲실습생 평가 및 성적 기준의 표준화 필요성 ▲실습 지도 인력 및 책임 범위 ▲실습 중 안전사고 및 책임 소재 ▲대학과 병원 간 역할 분담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2026년부터 시행되는 현장실습 법제화에 따라 실습 시간은 명확히 규정되었으나 실습의 질 관리와 평가 방식, 병원별 운영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는 점이 공통된 문제로 제기되었다.

현장실습 법제화는 임상병리사 양성 과정에서 실습의 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나 병원별 여건 차이와 대학 교육과정의 다양성으로 인해 동일한 기준을 현장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실습생의 개인적 인권 문제나 태도 문제, 병원의 인력 부담, 실습 지도자의 업무 가중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법제화 이후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 협의체 구성의 정례화와 행정업무 및 실습지도자의 보상체계 개선 등 사전 논의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 현장실습 운영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장실습 운영 규정 및 세부 지침의 표준화 ▲실습 시간 및 출결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 마련 ▲실습 평가 방식의 통일(성취도·참여도·태도 평가 등) ▲실습 지도자 교육 및 역할 정립 ▲대학과 병원 간 사전 협의 체계 강화 등이 논의되었다.

중앙회 동정

01월 07일 제8차 전산시스템 재구축 TF 회의
01월 10일 예산안 관련 회의
01월 20일 보수교육 운영 관련 교육부 및 총무부 회의
01월 23일 수도권 병원 실장&교수협의회 회의
01월 27일 보건복지부 보수교육 관련 실무자 회의
01월 29일 재건축 감리 최종 결과보고회

01월 08일 정보통신부-다루소프트 미팅
01월 14일 포상심의위원회
01월 21일 교육부 제1차 회의
01월 24일 제1차 법제위원회
01월 28일 정보통신부-다루소프트 회의
01월 31일 제515차 상임이사회 및 사업계획 보고회

세계로 진출하는 글로벌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귀 병원의 진료가 카자흐스탄(중앙아시아)으로 진출합니다!”

해외의료 국제협진과 PPCC (Pre Post Care Center)

(재)씨젠의료재단과 오픈헬스케어(주)가 운영하는 해외 메디컬 센터를 기반으로,
한국 의료기관과 현지 의료진이 협력하여 해외 환자들에게 맞춤형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자흐스탄 의료 국제협진 특징점

01 코리안 메디칼 센터 알마티 운영

02 최첨단 의료장비 완비 (MRI, CT, 내시경, 진단검사의학 · 분자진단 · 병리 검사 등)



MRI 3.0T
(중앙아시아 최초 도입)

CT 256 슬라이스
(카자흐스탄 최초 도입)

내시경 검사

03 안정적인 해외 환자의 진료와 원활한 해외 진출 지원

PPCC (Pre Post Care Center, 사전 · 사후관리센터)

- 해외 환자 진료 및 관리 프로그램 -

사전 관리 Pre Care



진료 장소
〈카자흐스탄〉 코리안 메디컬 센터 알마티

- 기초 검사 및 진단 실시
- 통역 및 행정 서비스 지원
- 한국 진료 및 치료 위한 준비 지원

국제협진



진료 장소
〈한국〉 협력 의료기관

- 공동 진료 의료서비스 제공
- 의료 시설 및 인력 · 장비 공유

사후 관리 Post Care



진료 장소
〈카자흐스탄〉 코리안 메디컬 센터 알마티

- 치료 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
- 원격 진료를 통한 환자 상태 공유
- 필요 약물 및 재활 치료 현지 제공

• 해외의료 국제협진 협력 : 오픈헬스케어(주) ☎ 02-2114-8011 🌐 www.ohc.global ✉ ohc@ohc.global

(재)씨젠의료재단은 지난 2023년 7월 해외 의료 진출을 위한 오픈헬스케어(주)(Open Healthcare, Inc)를 설립했습니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오픈헬스케어(주)와 함께 카자흐스탄 · 미국 · 베트남 메디컬 센터를 운영하며 한국의료 해외진출 · 해외환자의 국내유치에 힘쓰고 있고, 한국의료기관과 해외환자의 진료를 위해 오픈헬스케어와 협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씨젠의료재단 본원
SMF Central Laboratory
(Korea, Seoul)



부산경남검사센터
Busan Laboratory Center



대구경북검사센터
Daegu Laboratory Center



광주호남검사센터
Gwangju Laboratory Center



대전충청검사센터
Daejeon Laboratory Center



오픈헬스케어 코리안 메디컬 센터 알마티
Open Healthcare Korean Medical Center, Almaty
(Kazakhstan, Almaty)



오픈헬스케어 코리안 메디컬 센터 LA
Open Healthcare Korean Medical Center, LA
(USA, Los Angeles)



오픈헬스케어 코리안 메디컬 센터 하노이
Open Healthcare Korean Medical Center, Hanoi
(Vietnam, Hanoi)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Seegene Medical Foundation
글로벌질병검사전문의료기관

검사의뢰
학술문의 1566-6500
www.segenemedical.com



OPEN
Healthcare

☎ 02-2114-8000
🌐 www.ohc.global
✉ ohc@ohc.global



대구광역시임상병리사회

폐기능검사 심화교육 실시

대구광역시 임상병리사회(회장 문성식)는 2026년 국가건강검진 폐기능검사 도입을 앞두고 현장 실무자의 검사 수행 능력과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7일(수) 폐기능검사 심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검사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사례를 비롯해 검사 전·중·후 점검 항목, 결과 신뢰도 확보를 높이기 위한 기본 원칙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중소병의원 등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가 제한될 수 있는 의료기관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과정으로 마련되면서 신청 접수가 조기에 마감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교육이 진행됐다.



대구시 임상병리사회는 “국가건강검진 항목 확대는 검사실의 표준화와 품질 확보가 핵심 과제”라며 “앞으로도 회원들이 변화하는 제도와 현장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광역시 임상병리사회는 교육을 맡아 열정적으로 강의한 강사진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교육 운영을 위해 지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건강관리부에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부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

2026년 제1회 정기이사회 개최

부산광역시 임상병리사회(회장 황원주)는 1월 31일로 예정된 대의원총회를 준비하기 위해 1월 10일(토) 부산시회 사무실에서 TF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1월 13일(화) 제1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의원총회 준비를 위한 업무 분장을 논의하고 부산시회의 향후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임상병리사회

김병주 국회의원과 정책협약 체결



경기도 임상병리사회(회장 유광철)는 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과 함께 임상병리사의 제도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 및 정책 협약식에는 김병주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경기도회 정복해 행정부회장, 문기춘 사업부회장, 이석정 총무이사, 이강희 재무이사, 강유선 섭외이사, 한기정 중소병의원 이사, 김신종 기획전략이사, 중앙회 김기유 정책실장, 최혜숙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장, 유주연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임상병리사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여 국민건강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상호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양측은 국민 상당수가 위험군에 속한 당뇨병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당화혈색소 검사를 POCT(현장검사)기반으로 도입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운용·관리 할 수 있는 임상병리사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김병주 국회의원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방문형 의료서비스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임상병리사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국민건강권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두원공대와 실무 인재 양성 MOU 체결

경기도 임상병리사회와 두원공과대학교(파주캠퍼스)는 2025년 12월 11일(목) 임상병리 분야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식을 열고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해 현장 중심 교육과 정책 연계를 아우르는 실질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상병리과 학생들의 현장 실습 확대와 취업 연계 지원, 공동 학술세미나 및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술정보와 정책자료 교류, 보건의료 전문 인력 양성 모델 구축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유광철 경기도회장을 비롯해 정복해(행정부회장), 문기춘(사업부회장), 최충열(학술부회장) 등 협회 임원진과 두원공과대 임상병리과 박상용 교수가 참석했다. 또 양성일 분당서울대병원 정책연구기획센터 교수(전 보건복지부 1차관)와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이민우 교수(전 국회의장실 보건정책비서관)도 함께 자리했다. 양성일 교수는 축사를 통해 “임상병리사는 수면 아래에서 묵묵히 검사를 책임지는 존재지만, 그 결과는 진단과 치료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이라며 “이번 협약이 임상병리사의 전문성과 가치를 사회적으로 다시 조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용 교수는 “두원공과대 임상병리과는 이론 교육에 그치지 않고 산업 현장과 연결된 실천적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며 “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현장과 정책에 모두 강한 전문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광철 회장은 “실무에 강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현장과 교육, 정책을 연결하는 협력이 필수”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협회 차원에서도 학생들의 실습과 진로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임상병리사회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충청남도 임상병리사회(회장 이상훈)는 01월 10일(토) 오전 11시 홍성가족어울림센터 나라홀에서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김우형 총회의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총회는 축사, 시상 등이 진행됐고 △2025년도 회무 및 경과보고의 건 △202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의 건 △감사결과보고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 건이 진행되어 원안대로 의결됐다.

김우형 총회의장의 개회 선언

충청북도임상병리사회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충청북도 임상병리사회(회장 김창수)는 1월 17일(토) 청주대학교 2동 대학원 1층 세미나실에서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조인환 총무이사

가 사회를 맡고 김창수 충북도회장의 개회사와 박종오 행정부회장의 격려사로 시작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상당구 이강일 의원이 축사로 자리를 빛내주었고 이광희 의원과 이연희 의원은 영상 축사, 송재봉 의원과 충청북도회 이양섭 의장은 축전으로 함께 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를 대신하여 충청북도 의약관리팀 이민구 팀장이 참석하여 충북도회와 임상병리사 직역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하고 협력의지를 밝혔다.

총회에서는 △2025년도 경과보고의 건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또한 한 해 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포상을 진행했다.

충북도회는 2027년 종합학술대회 유치에 성공사례를 토대로 한해동안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회원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경상북도임상병리사회

포상심의위원회 회의 및 임시이사회 개최



경상북도 임상병리사회(회장 조대현)는 2025년 12월 18일(목) 포상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비대면(ZOOM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김민주 포상심의위원장(행정부회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심의에 참여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출된 추천서를 토대로 포상심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한 해 동안 도회 발전과 회원 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김민주 위원장은 회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도회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공정한 절차를 바탕으로 도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적극적으로 격려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임상병리사회는 2025년 12월 23일(화) 오후 7시, 비대면(ZOOM 화상회의) 방식으로 2025년 제3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앞서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 사항을 의결하였으며, 도회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역 분회 지원금 확대 지급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경상북도임상병리사회는 앞으로도 효율적인 도회 운영과 지역 분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광역시임상병리사회

집행부 임원워크숍 및 환경정화활동



대전광역시 임상병리사회(회장 권지연)는 11월 22일(토) 임원 워크숍과 함께 갑천 일대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워크숍을 통해 대전시회 임원들의 소통과 조직 역량 강화를 강화 하고, 환경정화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환경정화활동에 참석한 임원들은 갑천 주변을 정비하며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깨끗한 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권지연 회장은 “이번 임원워크숍과 환경정화활동을 통해 임원 간의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전시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임상병리사회

제54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인천광역시 임상병리사회(회장 채희영)는 2026년 1월 17일(토) 파크마린호텔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사업보고와 함께 2026년도 인천시회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채희영 회장은 “의료 환경이 급변하는 배경 속에서 의료 현장의 최일선에서 헌신해 주신 회원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인천시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었다”며 회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날 총회에는 인천시회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현안과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인천시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견들이 공유되었다. 채희영 회장은 회원 권익 보호와 위상 강화,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지원 확대, 소통과 화합의 공동체 구축 등의 운영 방향을 제시하였다. 인천광역시임상병리사회는 앞으로도 회원 중심의 시회 운영을 통해 지역 임상병리사의 전문성 강화와 권익 향상에 힘쓸 계획이다.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

2026년 평의원회 개최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회장 소선기) 1월 24일(토)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강당에서 평의원회를 개최했다. 공보부 주준하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평의원회는 2025년 사업 성과를 공유·보고하는 한편 2026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그리고 학회·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 운영 방향 확정 지었다.



회의에서는 학술대회 운영, 보수교육 및 심화교육 실시, 소식지(HEPa) 발행을 통한 학회 홍보 강화, 연구논문 및 전문서적 출판 사업 추진, QI 활동 사례 공모전, 전문임상병리사 양성교

육과 자격시험 운영 현황 등 학회 전반의 운영 현황과 학술·교육·연구 전반의 성과가 공유되었으며 중앙회 행정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를 반영한 제도 개선과 학회 운영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소개되었다. 특히 조직·세포·육안 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에서는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자격시험 시행을 통해 전문임상병리사의 전문성 강화와 현장 역량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는 ▲2025년도 본 학회 및 전임위 결산 ▲2026년도 본 학회 및 전임위 사업계획(안) ▲2026년도 본 학회 및 전임위 예산(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상정되었고 평의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승인되었다.

소선기 학회장은 “이번 평의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학회와 각 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가 함께 만들어 온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전문임상병리사의 역할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교육·학술·연구 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회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학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진단혈액학회

2026년 학술대회 개최 안내

대한진단혈액학회에서 다음과 같이 2026년 대한진단혈액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행사일시: 2026년 3월 12일(목) 09:00 ~ 17:30

행사장소: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 및 대회의실

사전등록기간: 2026년 2월 2일(월) ~ 2월 13일(금)

프로그램:

- 숫자 너머의 응고검사 - 증례를 중심으로
- 동아시아인 패러독스:진단검사와 함께 한 나의 여정
- 백혈병 유전체 기반 위험군 분류의 최신 지견
- SLACS로 여는 혈액종양 단일세포학: 아밀로이드증·골수종·백혈병
- 다발골수종의 최신 지견, 진단 기술의 진화 등

등록비(대한진단혈액학회 회원):

(1) 전문의: 40,000원(사전등록), 60,000원(현장등록)

(2) 군전문의/전공의/병리사/기타: 30,000원(사전등록), 50,000원(현장등록)

등록비(대한진단혈액학회 비회원): 70,000원(사전등록), 90,000원(현장등록)

* 산업계의 경우 등록비 100,000원

* 만 70세 이상 회원의 경우 등록비 면제

사전등록안내:

- 대한진단혈액학회 홈페이지(www.hema-research.or.kr)에서 가능합니다.
- 사전등록비는 홈페이지에서 카드결제를 하시거나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고 송금자 성명을 정확히 기입해 주십시오.
- * 사전등록비 입금계좌: 신한은행 140-011-010637 (예금주:대한진단혈액학회)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

2026년 세포전문임상병리사 심화교육 (ASCPi-Gyn 시험 대비 교육) 실시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 세포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에서 2026년 세포전문임상병리사 심화교육 (ASCPi-Gyn 시험 대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일시:

2026년 3월 7, 14, 21, 28일 (토요일 4주) / 09:00~18:00 (8시간)

교육장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3층 회의실 또는 4층 조직세포검사학회 교육장

교육방법: 대면교육

사전등록기간: 2026년 2월 2일(월) ~ 2월 13일(금)

등록자격조건:

- (1) 세포전문임상병리사 회원 및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
- (2) 2025년 조직세포검사학회 학술대회 등록자 우대

교육 모집인원: 20~30명 선착순(세포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 회원)

교육비용: 25만원(교재비 포함, 시험응시 접수비는 별도)

이수평점: 16시간(세포전문임상병리사 평점만 인정, 임상병리사 평점은 무관)

출석체크 방법: 현장출결

문의:

(1) 행정간사 윤현구: 전화 010-7363-2143 / hg09.yun@samsung.com

(2) 학술간사 강주원: 전화 010-4853-3435 / cppetato@naver.com

교육일정: 본 과정은 ASCPi-Gyn 시험 대비 교육과정입니다.

일시		강의 내용	강의실
3월7일 (토)	오전	Anatomy, Embryologic origins, Physiology	3층 회의실
	오후	Histology, Normal cellular morphology	
3월14일 (토)	오전	Benign leision, Reaction	
	오후	Functional disorders, Congenital abnomalies, Pre-malignant epithelial	
3월21일 (토)	오전	Vulva / Vagina / Cervix cancer	
	오후	Endometrium / Mesenchyma / Extra, Ovary	
3월28일 (토)	오전	Gyn - immuno / molecular, Laboratory operations	4층 교육장
	오후	Cytopathology preperation 1, 2	

교육비용 환불지침:

(1) 사전접수 기간 : 금융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환불

(2) 사전접수 마감 ~ 교육 직전일 23시 59분 :

교육비의 50%(직, 간접비) 공제

(3) 교육 시작일 ~ : 교육비의 간접비만 환불

(4) 환불신청 방법 :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 - 환불신청서 버튼 클릭 후 환불 신청서 작성 (이외의 방법으로는 신청 불가)

대한임상검사과학회

KJCLS 12월호(Volume 57, Number 4) 발행

논문 제목 클릭 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view Article

Quality Control of Mesenchymal Stem Cells for Cell Therapies in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Taejo KANG, Eunhee YEON, Hyekyung SONG, Hyejin SUNG, Jiyoung KIM

Korean J Clin Lab Sci 2025; 57(4): 397-409



Original Articles

Association of tcdB PCR Cycle Threshold with Toxin Antigen Positivity and Clinical Severity in Clostridioides difficile Infection

Chan Kyu KIM, Ho-Keun CHOI

Korean J Clin Lab Sci 2025; 57(4): 410-419

Investigating the Changes in Somatosensory Evoked Potential Waveforms during Surgery Based on Electrical Stimulation Parameter Settings

Seong Wook KIM, Seung Yeon LEE, Min Woo LEE

Korean J Clin Lab Sci 2025; 57(4): 420-429

Reliability and Efficiency of Spirometry Results Before and After the Revision of Quality Control Criteria in Special Health Examination Institutions

Jinhyang LEE, Jonghee PARK, Jongwon LEE

Korean J Clin Lab Sci 2025; 57(4): 430-439

Effects of Early Opening of the Outpatient Phlebotomy Room on Turnaround Time and Patient Satisfaction

Hyeon-Sook LEE, Yo-Han SEO

Korean J Clin Lab Sci 2025; 57(4): 440-449

Insulin and Insulin Receptor Variants: Structural and Functional Insights into Insulin Resistance

Hyun Ho SUNG, Ho-Keun CHOI, Kyung Bae LEE

Korean J Clin Lab Sci 2025; 57(4): 450-461

Association Study between Biomarkers of Metabolites and Their Relevance Genes for Hypertension in Korean Adults

Jaemee JUNG, Hyeyoung LEE, Dahyun HWANG

Korean J Clin Lab Sci 2025; 57(4): 462-472

Performance Evaluation of a B-type Natriuretic Peptide Assay Using the Alinity i Analyzer

Jae Yoon LEE, Chan Kyu KIM, Gi Yeong KIM, Kyung Sook CHOI, Ho Keun CHOI

Korean J Clin Lab Sci 2025; 57(4): 473-481

Relationship between Vitamin D and Metabolic Syndrome in Korean Adults: Analysis of the 2022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Se Won NAM, Seung Hee PARK, Jong Hee PARK

Korean J Clin Lab Sci 2025; 57(4): 482-490

Association between Urinary 3-hydroxypropyl Mercapturic Acid Levels and Metabolic Syndrome: Increased Risk in Female Non-smokers

Sang Shin PYO

Korean J Clin Lab Sci 2025; 57(4): 491-500

Comparative Analysis of Oxidative Stress-induced Reactive Oxygen Species Responses and POLG Expression between Bat and Human Cells

Hyun-Seok JIN, Sang-Hee JEONG, Dongju JUNG, Sangjung PARK, Kyongman AN, Yonghak AHN, Kiok AHN, Jaemee JUNG, Eunmin KIM, Dahyun HWANG

Korean J Clin Lab Sci 2025; 57(4): 501-509



Case Report

Effective Extraocular Muscle Monitoring for Cranial Nerves III and VI Using 25 mm Insulated Needle Electrodes: A Case Report

Jae Seung BAEK, Sung Hyuk LIM, Min Hwan JANG, In Seok LEE, In Joong YOON, Eu Gene SON, Do Sung CHOI

Korean J Clin Lab Sci 2025; 57(4): 510-514

임상병리사를 위한 흥미로운 보험정보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보험부 -

C형간염항체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사유

집행정지 안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 222호) 집행정지 안내

1. 관련 근거

-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 222호, 2024.10.29)
- 나.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 1823(2024.10.29)
- 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 인용 결정(2024.11.29)

2. 2024년 10월 29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시행일 2024.12.1.)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2024.11.29.)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 그 확정일까지) 불임의 고시(제2024- 222호) 내용은 적용되지 않으며, 변경 전 급여기준(고시 제2019- 176호) 적용됩니다.

C형간염항체 검사 급여기준 개정 내용

- 누700마 일반면역검사- C형간염항체(HCV Ab), 누700바 일반면역검사- C형간염항체(간이검사) (HCV Ab), 누701아 정밀면역검사- C형간염항체(HCV Ab)의 급여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동일 목적의 검사이므로 **동일 입원 기간 중 중복검사는 인정하지 않음.**
 - 가. 간기능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 나. 급성 및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 C형간염이 의심되거나 또는 C형간염의 배제가 필요한 경우
 - 다. 혈액종양 환자와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 등 잦은 수혈로 인해 C형간염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라. 혈액, 골수, 조직, 장기 등의 공여자
 - 마. C형간염 고위험군에서 감염원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경우
 - 바. 수술(관혈적 시술 포함)이 필요하거나 예측되는 경우
 - 사. 위 가.~바. 이외 임상적으로 필요하여 실시하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 누700바(2) 일반면역검사- 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II는 위 1항의 급여대상 중 다음과 같은 경우 구강점막액 검체로 OraQuick 키트를 이용하여 검사 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
 -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수술(관혈적 시술 포함)을 위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 나. HCV 진단검사 장비를 구비하고 있지 않은 요양기관에서 C형간염항체 선별이 필요한 경우
 - 다. 위 2항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으나 C형간염 고위험군 환자가 당일 처치를 위해 신속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 누700바 일반면역검사- C형간염항체(간이검사)는 간이검사인 점을 고려하여 검사 위탁은 인정하지 않음. (2024.12.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 일반면역검사- C형 간염항체(간이검사)- 유형 II **선별급여 재평가 결과 급여기준 개정**

C형간염항체 검사 급여기준 변경 전

■ 변경 전 고시번호(고시 제2019- 176호, 2019.9.1.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 누700마 일반면역검사- C형간염항체(HCV Ab), 누700바(1) 일반면역검사- C형간염항체(간이검사)- 유형 I 또는 누701아 정밀면역검사- C형간염항체(HCV Ab)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가. 간기능검사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나. 급성 및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 C형간염이 의심되거나 또는 C형간염의 배제가 필요한 경우

다. 혈액종양 환자와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 등 잦은 수혈로 인해 C형 간염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혈액, 골수, 조직, 장기 등의 공여자

마. C형간염 고위험군에서 감염원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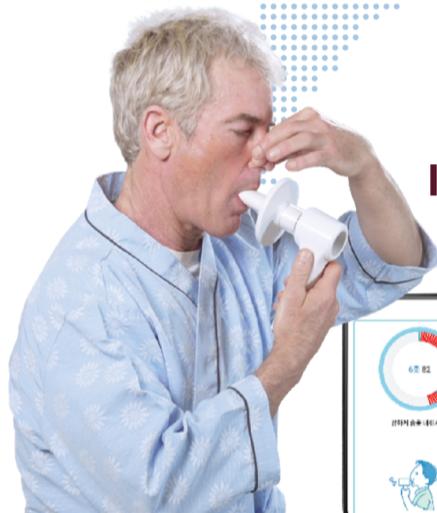
바. 수술(관혈적 시술 포함)이 필요하거나 예측되는 경우

사. 상기 가.~바. 이외 임상적으로 필요하여 실시하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TR
CORPORATION

2026년 공단검진 폐 기능 검사 추가 The Spirokit으로 대비하세요



KAMT NEWS



검사 결과 AI 자동 판독 및 분석

- GINA, GOLD 최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AI의 판독 & 분석
- 증상에 맞는 처방과 약물을 추천
- 호흡기 비전문의도 폐 기능 검사 가능

간편검사 및 검사가이드 S/W

- 검사 가이드 화면으로 검사과정 안내
- 검사 실패 확률을 줄여 검사 시간을 단축
- 검사 스트레스와 피로도 감소

검사 결과 AI 자동 판독 및 분석

- 2026 진폐정도관리 평가항목 준수
- 실제 의료기관 내 특수건강검진 사용

간편검사 및 검사가이드 S/W

- 높은 휴대성으로 병동 폐 기능 검사 가능 (무선 PACS 연동으로 병동검사 수가청구 O)
- 행위수가 F6002 / E7123 적용
- 공단 일반폐기능 검진 F6001 적용

제품문의

042-719-8823

newxman@theresearcher.co.kr

차세대 의료기기 전문기업
TR CORPORATION

감상평 EVENT



이번 호 병리협보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의 감상평을 보내주세요.

접수기한 • 2026년 2월 20일(금) 18:00까지 전송

접수방법 • 접수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이메일
(kamtreporter@daum.net)로 발송

접수양식 •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 해당 기사에 대한 간단한 의견
- 개인정보 : 성명, 면허번호, 상품받으실 주소

♥ 제516호 당첨자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 같은 임상병리사... 또다른 현실

● 김양진(정회원) / 면허번호 : 27143

지난 1월 협보의 「같은 임상병리사 또다른 현실」을 읽으며 깊은 공감을 하였습니다. 중소병·의원에서 근무하는 수많은 임상병리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글이었고, 마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듯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협회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며 희망을 보았습니다. 임상병리사의 위상을 높이고, 제도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절실합니다. 앞으로도 임상병리사의 목소리가 사회와 제도 속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 정재은(정회원) / 면허번호 : 39961

중소병원 임상병리사의 현실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짚어낸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개인의 역량이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 규모와 시스템에 따라 역할과 책임, 처우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특히 공감되었습니다. 임상병리사의 역할이 앞으로는 보다 공정하게 평가받고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원 동 정



충청북도임상병리사회 배정실 회원
충북대학교병원 병리과 팀장 발령



충청북도임상병리사회 최명식 회원
청주의료원 진단검사의학과 팀장 발령



충청북도임상병리사회 임종웅 회원
충주의료원 진단검사의학과 실장 발령

대한임상병리사협회 SNS

카카오톡채널 친구추가 및 SNS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카카오톡 채널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인스타그램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페이스북 페이지



회원소식을 전달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소식이 궁금합니다.

[kamtreporter@daum.net]로
회원 여러분의 소식을 보내주시면
병리협보에 빠르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1월 언론보도

기사 제목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01.21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경기도회,
김병주 의원과 정책협약



병원신문

The Korean Hospital News Weekly

임상병리사 역할 강화 위한
정책협약 체결



의학신문

임상병리사협회 경기도회
김병주 의원과 정책 MOU



厚生新報

70년의 역사 의료계 최초의 신문

임상병리사협회 경기도회-
김병주 국회의원 정책 협약 체결



이로운넷

김병주 의원, 대한임상병리사
협회 경기도회와 정책협약...



내외통신

김병주 의원, 대한임상병리사
협회 경기도회와 정책협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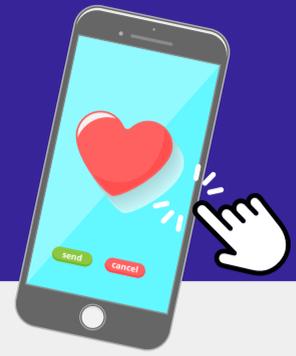
경기신문

김병주,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경기도회와 정책협약 전격 체결



16개 시도회 SNS

해당 시도회를 누르시면 접속 가능합니다. 팔로잉과 친구 추가해주세요.



부산시회
임상병리사회



광주시회
임상병리사회



인천시회
임상병리사회



울산시회
임상병리사회



경기도회
임상병리사회



강원도회
임상병리사회



충남도회
임상병리사회



전북도회
임상병리사회



경북도회
임상병리사회



경남도회
임상병리사회

▶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서울시회 +
임상병리사회



대구시회 +
임상병리사회



광주시회 +
임상병리사회



경기도회 +
임상병리사회



경남도회 +
임상병리사회



충북도회 +
임상병리사회



강원도회 +
임상병리사회